



부산경총 보도자료

2025. 7. 15. (총9쪽)

2025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 결과

■ 올해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 3.4일

부산경영자총협회(회장 김광수)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「2025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」결과, 올해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3.4일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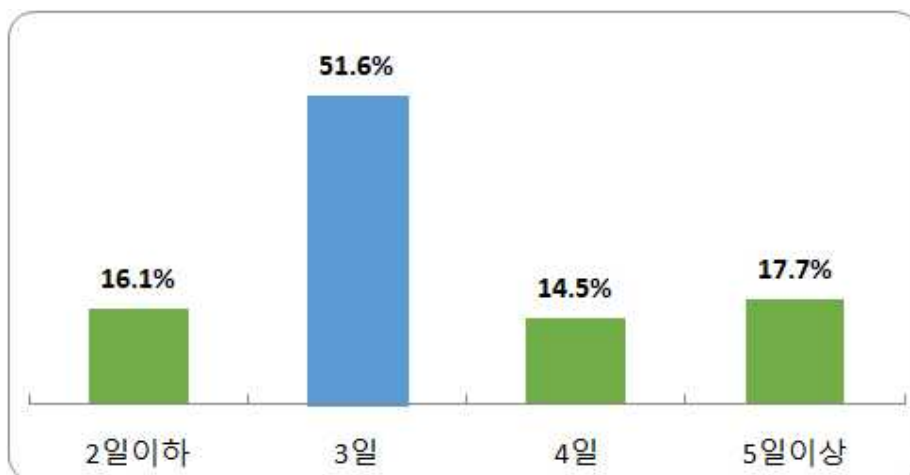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는 제조업 3.4일, 비제조업 3.2일로 나타났고,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.5일, 중소기업이 3.3일로 조사되었다.

< 표 1 > 하계휴가 일수 (단위 : 일)

전체	업종별		규모별	
	제조업	비제조업	대기업	중소기업
3.4	3.4	3.2	3.5	3.3

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'3일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1.6%로 가장 많았고, '5일 이상' 17.7%, '2일 이하' 16.1%, '4일' 14.5%로 조사되었다.

[그림 1] 하계휴가 일수 분포



■ 부산지역 하계휴가 집중 시기는 7월 하순 (52.2%)

제조업은 단기간에 집중 휴가, 비제조업은 넓은 기간 골고루 휴가 부여

부산지역 기업들은 전통적인 하계휴가 기간인 7월말~8월초에 하계휴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.

7월 하순이 52.2%로 가장 많았고, 8월 초순 45.7%, 기타 2.1%로 나타났다.

하계휴가 부여 방식은 '단기간(약 1주일)에 집중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'하는 기업이 71.2%, '상대적으로 넓은 기간(1~2개월) 동안 골고루 휴가를 부여'하는 기업이 23.7%, '2주일 정도에 걸쳐 교대로 휴가를 부여'하는 기업이 5.1%로 조사되었다.

업종별로는 제조업의 83.7%가 '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부여'한다고 응답한 반면, 비제조업의 90.0%는 '넓은 기간에 골고루 부여'한다고 응답하는 특징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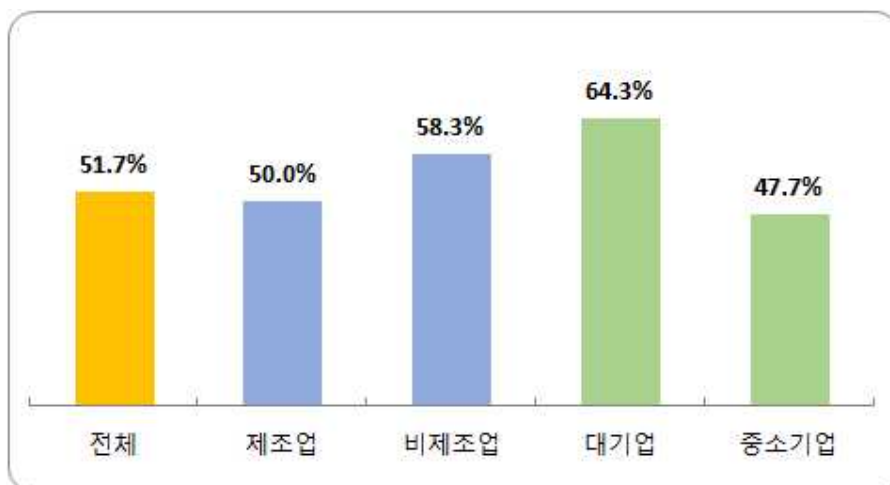
■ 부산지역 51.7%의 기업이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

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 중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은 51.7%로 조사되었다.

업종별로는 제조업 50.0%, 비제조업 58.3%로 응답하였고,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64.3%, 중소기업 47.7%가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.

하계휴가비 지급 형태는 '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'하는 기업이 54.8%, '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 휴가비 지급' 기업이 35.5%, '기타' 9.7%로 조사되었다.

[그림 2]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



■ 65.4% 기업이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

응답 기업의 65.4%가 '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'이라고 조사되었다.

이는 2024년의 56.9%에 비해 8.5%p 늘어난 수치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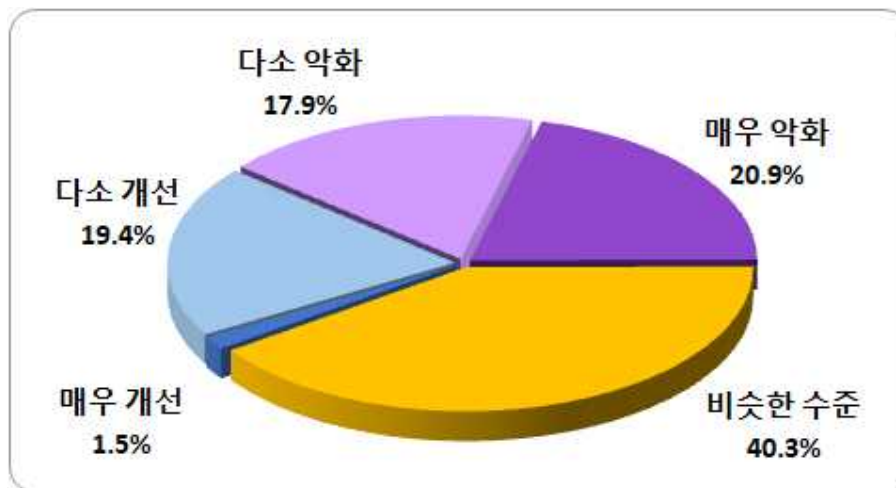
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시는 주된 이유로는 '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절감 차원에서'라는 응답이 46.3%로 가장 많았고, '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'라는 응답이 41.5%, '최근 경영여건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제도 시행' 12.2%로 나타났다.

■ 하반기 경기 전망, 상반기와 비슷할 것 40.3%, 악화 38.8%, 개선 20.9%

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'비슷한 수준'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40.3%로 나타났다.

세부적으로는 '매우 악화' 20.9%, '다소 악화' 17.9%, '비슷한 수준' 40.3%, '다소 개선' 19.4%, '매우 개선' 1.5%로 전망되었다.

[그림 3]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기 전망



※ 첨부 : 2025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 결과(6쪽) 1부. 끝.

2025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 결과

1

올해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 3.4일

부산경영자총협회(회장 김광수)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「2025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」 결과, 올해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3.4일로 조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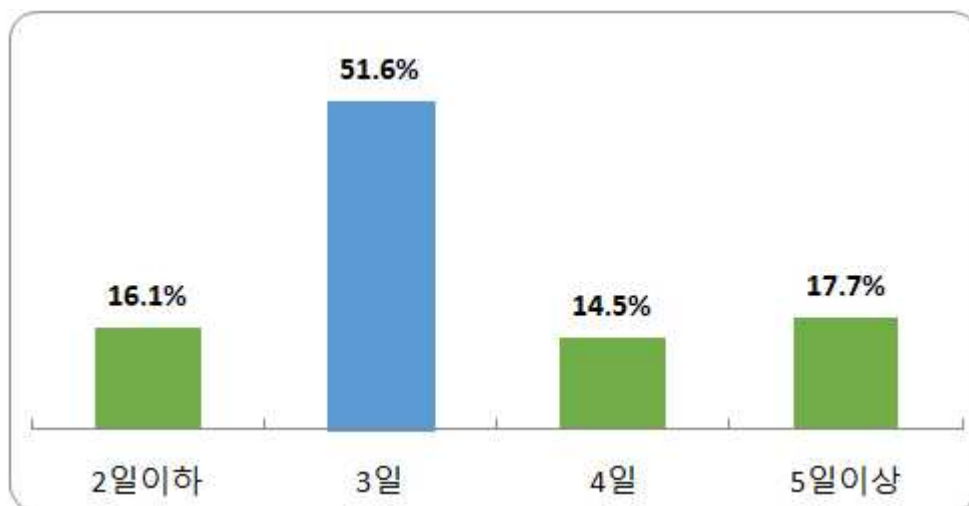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는 제조업 3.4일, 비제조업 3.2일로 나타났고,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.6일, 중소기업이 3.3일로 조사됨.

< 표 1 > 하계휴가 일수 (단위 : 일)

전체	업 종 별		규 모 별	
	제조업	비제조업	대기업	중소기업
3.4	3.4	3.2	3.5	3.3

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‘3일’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1.6%로 가장 많았고, ‘5일 이상’ 17.7%, ‘2일 이하’ 16.1%, ‘4일’ 14.5%로 조사됨.

[그림 1] 하계휴가 일수 분포



2

부산지역 하계휴가 집중 시기는 7월 하순 (52.2%)
제조업은 단기간에 집중적 휴가, (83.7%)
비제조업은 넓은 기간에 골고루 휴가 부여 (90.0%)

 부산지역 기업들은 전통적인 하계휴가 기간인 7월말~8월초에 하계휴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됨.

- 7월 하순이 52.2%로 가장 많았고, 8월 초순이 45.7%, 기타 2.1%로 나타남.
- 하계휴가 부여 방식은 ‘단기간(약 1주일)에 집중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’하는 기업이 71.2%, ‘상대적으로 넓은 기간(1~2개월) 동안 골고루 휴가를 부여’하는 기업이 23.7%, ‘2주일 정도에 걸쳐 교대로 휴가를 부여’하는 기업이 5.1%로 조사됨.
-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83.7%가 ‘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부여’한다고 응답한 반면, 비제조업의 90.0%는 ‘넓은 기간에 골고루 부여’한다고 응답하는 특징을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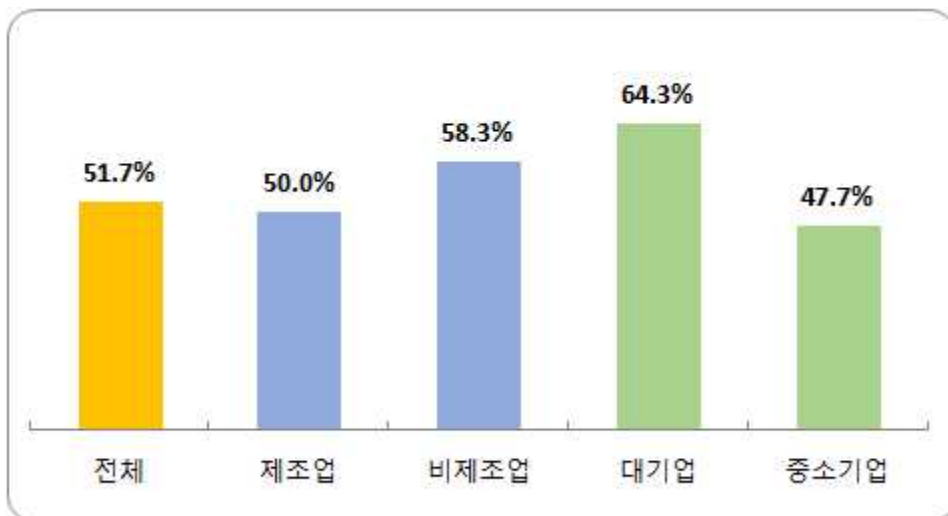
3

부산지역 51.7%의 기업이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

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 중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은 51.7%로 조사됨.

- 업종별로는 제조업 50.0%, 비제조업 58.3%로 응답하였고,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4.3%, 중소기업 47.7%가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조사됨.

[그림 2]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



- 하계휴가비 지급 형태는 ‘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’하는 기업이 54.8%, ‘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 휴가비 지급’ 기업이 35.5%, ‘기타’ 9.7%로 조사됨.

4

65.4% 기업이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

응답 기업의 65.4%가 ‘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’이라고 조사됨.



이는 2024년의 56.9%에 비해 8.5%p 늘어난 수치임.

*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(근로기준법 제61조) :

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.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,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(고용노동부)



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시는 주된 이유로는 ‘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절감 차원에서’라는 응답이 46.3%로 가장 많았고, ‘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’라는 응답이 41.5%, ‘최근 경영여건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제도 시행’ 12.2%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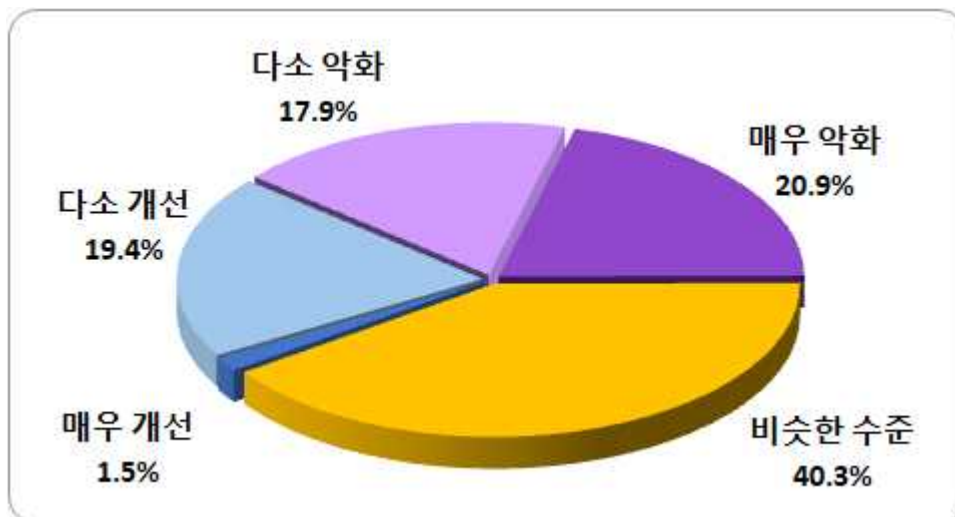
5

하반기 경기 전망, 상반기와 비슷할 것 40.3%,
악화 38.8%, 개선 20.9%

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‘비슷한 수준’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40.3%로 나타남.

세부적으로는 ‘매우 악화’ 20.9%, ‘다소 악화’ 17.9%, ‘비슷한 수준’ 40.3%, ‘다소 개선’ 19.4%, ‘매우 개선’ 1.5%로 전망됨.

[그림 3]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기 전망



조 사 개 요

1. 조사목적

본 조사는 부산지역 기업의 하계휴가 기간, 휴가비 지급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별기업의 하계휴가 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최근 경기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조사범위 및 대상

부산지역 주요기업 기업 1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

4. 조사기간

조사기간 : 2025년 7월 1일 ~ 7월 7일

5. 조사방법

설문작성을 통한 자계식 조사와 전화를 통한 타계식 조사를 병행하였다.

6. 조사내용

- (1) 하계휴가 일수
- (2) 하계휴가 실시 기간
- (3)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
- (4)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
- (5)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기 전망

7. 설문회수현황

(단위 : 개)

전 체		133
규모별	대기업	20
	중소기업	113
산업별	제조업	99
	비제조업	34